

[연구논문]

도 시 노 인 의 자 원 봉 사 에 대 한 태 도 에 관 한 연 구

- 서울 시 복 지 관 이 용 노 인 을 중 심 으 로 -

A Study on Elders of Voluntary Activity Attitude in Seoul

- Focused on Experienced Elders in Social Welfare Center -

김 경 민*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건의

ABSTRACT

Kim, Kyu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type and information acquirement level of elders on their attitude for voluntary activity. The study subject of this was 227, which was composed of inexperienced elders in voluntary activity in Seoul.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2 to December 5 in 2001.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affirmative behavior on voluntary activity by 52.4% elders and negative behavior by 47.6% of them.
2. It was recognized that elders' characteristic type has effect on their attitude for voluntary activity. Especially, elders who have the Active Integrated Coping showed positive attitude on voluntary activity and negative attitude with the Self-Negating Under Coping.
3. It was recognized that attitude for voluntary activity is under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cquirement level and elders who have strength on it show positive attitude on voluntary activity.
4. Elders who have higher living standard and higher formal schooling showed the affirmative attitude on voluntary activity.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원

Based on the study result abov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ork are like followings: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al programs for eld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y at present. Especially, this education programs need to include understanding for whole voluntary activity and the importance of elders as participants in voluntary activity.

To grasp elders' characteristic type, their formal schooling, the living standard, and the type occupation before retirement is important to lead their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y. This means that the way of inviting elders for voluntary activity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last, supports on the policy level are needed to success these clinical practices. In order to expand elders' voluntary activity, institutional supports have to be carried out.

키워드(Key Words): 노인(elders), 자원봉사(voluntary activity), 성격유형(characteristic types), 태도(attitude)

1. 서론

현대 사회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 위생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주기의 한 단계로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1년 현재 7.4%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통계청, 2002). 이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도시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는 노후생활의 경제문제, 건강문제, 심리문제, 여가선용문제 등을 야기하여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에게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보충해 주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느끼게 하며 고독감을 감소시키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노년기를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Teaff,

1985). 그러나 한국 노인들 중 전문직 은퇴자들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이가옥, 1996).

이러한 추세에서 낮은 노인자원봉사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노인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노인에게는 봉사활동을 권유해야 하고, 어떤 노인에게는 직접적인 권유보다는 사전에 다른 개입방법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노인자원봉사기관이 노인 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지역 복지관 이용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유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행위자간에 가치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주고받는 교환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가치있는 것의 주고받음, 즉 교환은 사회생활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의의를 갖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되어지며, 이러한 보상요인을 자원봉사활동 결정 요인에 설명력 있는 변수로서 고려하고자 한다.

즉, 개인은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역으로 비용이 되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철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질서는 이윤 혹은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부산물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이론적 시각에 의하면 개인간, 집단간 및 개인과 집단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당사자간에 자원을 주고 받는 관계로 보고, 사회는 이러한 교환관계가 어떤 일정한 형태로 유형화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사자들의 권력이 대등하게 유지될수록 교환관계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간의 권력관계가 대등

하지 못하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최일섭·최성재, 1995).

Dowd(1975)는 교환이론적 전통에 근거하여 노인생활의 경험을 이해하려 하였다. 노인들은 적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과 상호작용시에 상대적으로 권력의 열세에 처하게 마련이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노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에게 비용이 되는 셈이다. 그 결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노인들은 사회참여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단지 타연령과 상호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만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노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를 노년층과 사회간의 교환과정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노인의 퇴직제도와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현상은 교환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 등이 낙후되고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약화는 노인과 경영주와의 교환관계에서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또는 가치의 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가사운영, 육아 등에서도 노인의 경험과 전통적인 지혜는 자녀들이 습득한 과학적 지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되어 의존적이 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최일섭·최성재, 1995).

교환이론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교환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교환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환이론은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생애주기적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활동의 영역이 그의 인생주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는 그가 어떤 발달적 단계에 있든지 동일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Fischer & Schaffer, 1993).

생애주기적 관점은 노인과 자원봉사와의 관계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작스레 65세 또는 70세의 노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또한 나이가 든다고 하여 개개인의 가치관, 태도, 윤리적 준거, 정치적 사상, 일반적 성격 특성 등이 드러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즉, 생애주기적 관점은 한 개인이 스스로의 삶 대부분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젊은 시절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퇴직하거나 65세 이상의 노년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젊은 시절부터 자원봉사활동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Harootyan,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노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의 삶의 전반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기 쉽지 않다. 따

라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3. Shanan의 노인성격특성 이론

Shanan(1985)은 그의 저서 『Personality and Types and Culture in Later Adulthood』에서 노인의 성격유형을 밝힌 바 있다. Shanan은 Q기법을 통하여 노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82개의 항목을 설정하였고, 이를 요인분석하여 성격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각 적극적 통합형(the Active Integrated Coper), 의존적 수동형(the Dependent Passive Coper), 실패 과장형(the Failing Overcoper), 자기 부정형(the Self-Negating Undercoper)인데 각 성격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통합형’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에 관한 관심도 많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의존적 수동형’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쉽게 느낀다. ‘실패과장형’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평상시 우울감도 많이 느낀다. 또한 ‘자기부정형’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치중하여 사고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유형이론은 노인의 성격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태도 또는 인식 등의 연구 논리에 적합하다.

노인의 성격은 개개인의 인생이 실린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노인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노인의 태도 또는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수 있다 (Shanan, 1985).

윤남숙(1994)은 성격특성에 따른 죽음 인식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노인의 성격이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는데 노인의 성격을 유형화함에 있어 Shanani의 분류를 사용하여 성격을 측정하였다. 또한 배소희(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태도 연구에서 성격특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고, 이 때 노인의 성격유형을 Shanani의 분류로 측정한 바 있다. 이영은(1990)은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이 노인의 현재 생활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때 생활에 대한 만족을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 대한 인식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태도 또는 인식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또는 인식에 성격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성격유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Shanani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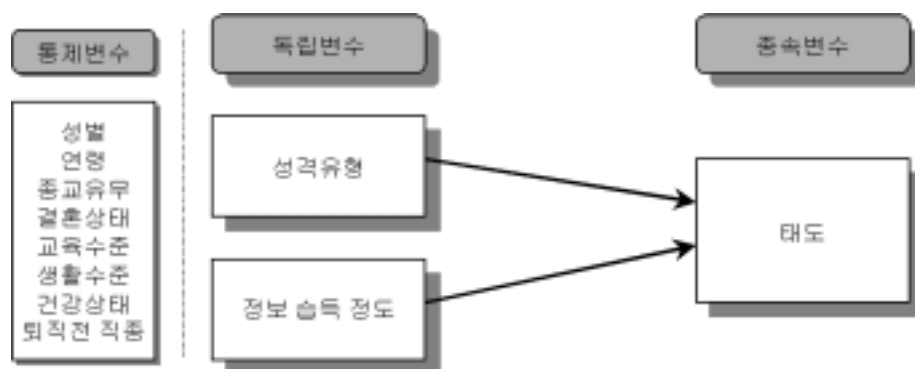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노인의 성격유형과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습득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종교유무, 결혼상태, 교육수준, 생활수준, 건강상태와 퇴직 전 직종을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성격유형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



<그림 1> 연구모형

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Shanani가 구성한 4가지 차원의 성격유형 항목들로 측정하였다. Shanani는 Q기법을 통하여 노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82개의 항목들을 설정하였고, 이를 요인분석하여 성격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다. 4가지 성격유형은 각각 적극적 통합형(the Active Integrated Coper), 의존적 수동형(the Dependent Passive Coper), 실패 과장형(the Failing Overcoper), 자기 부정형(the Self - Negating Undercoper)이다.

총 20문항으로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데 각 항목은 ‘그렇다’는 2점, ‘모르겠다’는 1점, ‘아니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을 곧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으로 보았다.

2)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습득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습득정도의 측정은 이금룡(1999)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습득 부족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돕는 기관에 대해 잘 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안다’, ‘자원봉사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잘 안다’,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는 지인이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자고 권유하는 친지나 친구가 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습득 정도는 위의 5개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척도에 따라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정보습득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각 문항의 값을 더하여 평균값을 낸 것이 조사대상

자의 정보습득정도라고 보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봉사활동 정보 습득 정도의 신뢰도 검정 결과인 Cronbach alpha는 .8818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태도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금룡(1999)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고양곤(1998)의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분류·수정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존연구의 분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원봉사에 관한 태도를 나타내는 총 18개의 항목들을 선택하고 몇 개의 하위 체계로 구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후, 7개의 요인을 다시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4가지 태도유형을 분류하였다. 4가지 태도유형은 이해 부족, 정보 부족, 부정적 자기인식, 부정적 시각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4점 Likert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가지 태도 유형에 대해 4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태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태도 측정은 부정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점수화했을 때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원봉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통계처리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노인에게 한정하므로, 조사 전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 후, 경험이 없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조사하기 위해 주로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가양4종합복지관, 중저층이 이용하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중상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중상층이 이용하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 설문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각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약 15분간의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4명의 사회복지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조사자가 총 227명과의 개별 면접을 통한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를 SAS를 통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격유형이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1>은 성격유형의 차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분석대상인 4가지의 성격유형 즉, 적극적 통합형(A), 의존적 수동형(B), 실패 과장형(C), 자기 부정형(D)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태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평균은 1.95, 2.20, 2.08, 2.14이므로, 적극적 통합형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측정은 부정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점수화했을 때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 C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태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A, B, D유형은 태

<표 1> 성격유형 차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분석

	적극적 통합형(A) Mean ±(S.D.) t / Sig	의존적 수동형(B) Mean ±(S.D.) t / Sig	실패 과장형(C) Mean ±(S.D.) t / Sig	자기 부정형(D) Mean ±(S.D.) t / Sig
태도	1.95 ±(.33) -4.27/.000***	2.20 ±(.35) 2.05/.04*	2.08 ±(.37) -.46/.64	2.14 ±(.44) 2.78/.006**
F = 5.43 Duncan's Test = A / C, B, D				

*p<.05, **p<.01, ***p<.001

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성격유형은 적극적 통합형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태도에 대해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을 가진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복지관 이용 노인으로서 특히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많았다. 이는 이러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노인이 많으므로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인도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권유에 적절한 대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부정형의 성격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도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자기부정형의 성격을 가진 노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의존적 수동형의 성격유형에서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의존적 수동형의 성격을 가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큼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성격유형과 정보습득정도가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요인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부분이다. 즉 성격유형과 정보습득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인 4가지 태도유형을 각각 중다회귀분석하였다. 통제변수의 직업 1, 2, 3은 각각 퇴직 전 직업이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일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독립변수인 성격 1, 2, 3, 4는 각각 적극적 통합형, 의존적 수동형, 실패 과정형, 자기부정형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

종속변수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로 회귀분석한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 통제변수 가운데는 직업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즉, 퇴직 전 직종이 블루칼라인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홍보 또는 교육을 할 때, 노인의 퇴직 전 직종에 따라 이를 차별화하여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퇴직 전 직종이 화이트 칼라일 경우에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직 퇴직 노인들의 모임은 현재 친목회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변수인 정보습득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표 2〉 자원봉사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격유형, 정보습득정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태도(n=227)							
		이해부족		정보부족		부정적 자기인식		부정적 시각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137 (.096)	.142	.026 (.144)	.037	.179 (.166)	.114	-.033 (.175)	-.016
	종교	-.130 (.067)	-.158	-.013 (.101)	.007	-.452 (.117)	-.323***	.031 (.123)	.016
	결혼상태	.045 (.065)	.068	.063 (.097)	.047	.014 (.112)	.006	-.029 (.118)	-.028
	주거형태	-.060 (.055)	-.089	-.156 (.082)	-.114	-.007 (.094)	-.019	.018 (.099)	.012
	생활수준	-.028 (.032)	-.078	-.065 (.047)	-.100	-.033 (.055)	-.065	-.100 (.058)	-.157
	건강	.110 (.044)	.196	-.030 (.066)	-.007	-.031 (.076)	-.056	-.022 (.080)	-.027
	학력	.020 (.015)	-.142	.036 (.022)	.165	.026 (.025)	.109	.027 (.026)	.107
	직업1	.235 (.071)	.252**	-.074 (.106)	-.036	.168 (.122)	.098	-.026 (.129)	-.016
	직업2	.125 (.099)	.164	-.143 (.149)	-.132	.125 (.172)	.074	-.102 (.181)	-.077
	직업3	.114 (.083)	.185	-.134 (.138)	-.128	.112 (.183)	.062	-.114 (.198)	-.092
	연령	.149 (.067)	.181	-.022 (.101)	-.036	.155 (.116)	.117	-.273 (.122)	-.174
독립 변수	정보습득	-.128 (.037)	-.273***	-.156 (.055)	-.208**	-.088 (.063)	-.139	-.166 (.067)	-.211*
	성격1	-.041 (.108)	-.142	-.042 (.162)	.031	-.241 (.186)	-.231	-.119 (.196)	-.088
	성격2	-.019 (.108)	-.080	.424 (.162)	.325**	-.155 (.187)	-.138	.072 (.197)	.033
	성격3	-.103 (.115)	-.051	.142 (.172)	.108	-.214 (.198)	-.122	-.190 (.209)	-.081
	성격4	-.058 (.052)	-.084	-.036 (.135)	.036	-.189 (.174)	-.105	.082 (.097)	.073
R ²		.187		.194		.150		.168	
adjusted R ²		.130		.134		.087		.107	
F		3.08***		3.22***		2.37**		2.73**	

*p<.05, **p<.01, ***p<.001

주) Dummy Variable화하여 사용함: 직업1: 블루칼라=1, 나머지(화이트칼라, 주부)=0,
 직업2: 화이트칼라=1, 나머지(블루칼라, 주부)=0, 직업3: 주부=1, 나머지(블루칼라, 화이트칼라)=0.
 성격1: 적극적 통합형=1, 나머지=0, 성격2: 의존적 수동형=1, 나머지=0, 성격3: 실패 과정형=1,
 나머지=0, 성격4: 자기 부정형=1, 나머지=0.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 이는 정보습득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확대가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격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 정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 정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경우, 이 모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보습득 정도와 성격변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정보습득’과 이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 정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는 두 변수 사이에 상호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 정보부족에서 비롯되는 태도’가 ‘정보습득’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습득 정도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난 통계결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독립변수 가운데 성격 2, 즉 퇴직전 직종이 화이트 칼라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p=.01$), 이는 의존적 수동형의 성격유형을 띤 노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은 후,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계획해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는 태도

‘자원봉사에 관한 부정적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는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러나 이 모델의 통계결과 역시 독립변수인 ‘성격유형’과 종속변수인 ‘부정적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는 태도’ 사이에 상호 연관성에 기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결정되어진다는 논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종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이는 종교를 가진 노인일수록 부정적 자기인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적어도 종교를 가진 노인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를 가진 노인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태도

‘자원봉사에 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태도’

도'의 경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p=.01$). 이 모델에서도 독립변수인 정보습득 정도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습득 정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p=.05$).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원봉사에 관한 태도는 모두 1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요인분석시 분류에 용이하지 않은 두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으로 태도를 분석하였다. 태도에 관한 각 문항은 모두 부정형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자원봉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모델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1$), 통제변수 가운데 종교($p=.040$)와 생활수준($p=.006$)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진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이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2>에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모델 (2)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습득 정도

를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투입한 회귀방정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정보습득 정도는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통제변수 가운데 종교($p=.047$)와 생활수준($p=.006$)은 모델 (1)에서와 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성격유형¹⁾을 함께 투입한 것으로 모델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07$), 생활수준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25$).

모델 (4)는 정보습득 정도와 성격유형,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투입한 회귀방정식의 결과로, 모델은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p<.0001$). 정보습득 정도가 높으면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모든 모델의 모델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정보습득 정도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모델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성격유형과 함께 투입되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각 모델별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변수들, 즉 독립변수인 '정보습득'과 '성격유형'이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1) 4가지의 성격유형 가운데, 적극적 통합형이 6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시, 적극적 통합형과 다른 성격유형의 2가지 유형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자원봉사활동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태도(n=227)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통 계 변 수	성 별	-.076 (.082)	-.089	.007 (.024)	.008	-.058 (.084)	-.070	.045 (.085)	.055
	연 령	.022 (.025)	.066	-.013 (.101)	.021	.008 (.025)	.024	-.008 (.024)	-.024
	종 교	-.123 (.060)	-.141*	-.115 (.058)	-.132*	-.117 (.060)	-.140	-.110 (.058)	-.131
	주거 형태	-.087 (.050)	-.115	-.067 (.048)	-.089	-.073 (.050)	-.101	-.048 (.049)	-.067
	생활수준	-.079 (.029)	-.213**	-.059 (.028)	-.158*	-.067 (.030)	-.191*	-.055 (.029)	-.157
	건강	-.023 (.039)	-.043	.004 (.038)	.007	.002 (.041)	.004	.027 (.040)	.053
	학 력	.000 (.014)	.004	.009 (.014)	.062	-.004 (.015)	-.029	.005 (.014)	.038
	직업1	-.018 (.066)	-.021	.003 (.064)	.004	.055 (.067)	.064	.075 (.065)	.088
	직업2	-.146 (.095)	-.154	-.122 (.092)	-.130	-.041 (.099)	-.046	-.019 (.095)	-.021
	직업3	.101 (.072)	.175	.103 (.115)	-.116	.069 (.116)	.023	-.034 (.071)	-.032
독 립 변 수	정보습득			-.135 (.034)	-.291***			-.141 (.035)	-.316***
	성격1					-.088 (.080)	-.117	-.046 (.078)	-.062
	성격2					.112 (.085)	.114	.144 (.082)	.147
R ²		.109		.169		.152		.220	
adjusted R ²		.072		.131		.103		.171	
F		2.94**		4.39***		3.11***		4.47***	

*p<.05, **p<.01, ***p<.001

주) Dummy Variable화하여 사용함. 직업1: 블루칼라=1, 나머지(화이트칼라, 주부)=0,

직업2: 화이트칼라=1, 나머지(블루칼라, 주부)=0, 직업3: 주부=1, 나머지(블루칼라, 화이트칼라)=0.

성격1: 적극적 통합형=1, 나머지=0, 성격2: 의존적 수동형, 실패 과장형, 자기 부정형=1, 적극적 통합형=0.

비롯되는 태도, ‘자원봉사에 대한 부정적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는 태도’에 상호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본 회귀분석의 결과인 <표 3>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종속변수와 연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관한 통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V. 요약 및 건의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습득 정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습득 정도와 관련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하위체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성격유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의 차이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측정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한 4가지 성격유형인 적극적 통합형, 의존적 수동형, 실패 과정형, 자기 부정형 가운데,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통한 봉사활동 유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종교의 유무에 따른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봉

사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종교의 교리가 자원봉사활동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음과 관련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가진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한다면 봉사활동 진행에 더 유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퇴직 전 직종이 블루칼라인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생활수준의 경우도 스스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의 차이나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사이의 빈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님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특히, 조사대상이 복지관 이용노인이므로 현재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므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가진 노인이 많았고, 이러한 노인들은 잠재적 봉사자로 인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데 있어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대상 노인에 관한 특성을 파악한다면, 그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의 성격이 고정적이고, 인생 전체가 누적된 개별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성격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원봉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교육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습득 정도가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함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습득 정도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노인 에 의한 봉사활동 정도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중요한 정보 습득은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전국민적 차원의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국가 전체가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센터를 두고, 이러한 지원센터는 복기관과 동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노인의 성격유형별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종교유무, 퇴직 전 직종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인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은 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년에게도 확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참여와 불참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봉사활동의 장으로 이끄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불참의 여부만 파악하거나, 자원봉사의 의미는 모른 채 시간활용이 가능한 노인들을 동원하는 차원의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장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어떠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의 잠재적 노인 봉사자에 관한 정보 사정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집단을 특성별로 세분화(계층별, 성격유형별, 주거형태별, 종교유무별 등)하여 그들의 능력, 경험, 욕구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잠재적 봉사인력을 모으는데 용이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양곤(1998),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수원시 노인복지주간토론회 자료집
- 김동배(1999),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집문당
- _____(1990),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길잡이』, 한국 자원봉사능력연구회, 삼진문화인쇄사
- 김익기·김동배·모선희·원영희·이연숙·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 인력연구센터
- 윤남숙(1994), “노인의 성격유형과 죽음불안도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1996),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 이금룡(1999),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밝은노후모임 창립1주년 학술 세미나 자료
-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 유형과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99),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3-3)
- 최일섭·최성재(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통계청(2002),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결과”
- Fisher, L. R. & Schaffer, K. B. (1983). *Older Volunteers: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CA: Sage Publications
- Harootyan, R. A. (1996). Volunteer Activity by Older Adult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613-620
- Shanan, J. (1985). *Personality Types and Culture in Later Adulthood*. New York: Karger
- Teaff, J. T. (1985). *Leisure Services with the Elderly*. Times Mirror: Mosby College Publishing